

유아세례의 복

The Blessing of Infant Baptism

에베소서 1:3-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2월 18일 김동하 유아세례 설교

³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⁴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⁵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⁶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학문의 관점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밀 뒤르켐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처음 시작한 건데 말 그대로 종교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뭘 믿는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그저 모든 종교를 같은 차원에 두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연구합니다.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와 힌두교를 많이 믿는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잘 사나, 기독교와 불교 가운데 어느 쪽이 자살률이 더 높나, 이런 조사도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보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좀 당황스럽지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신을 섬기고 있지만 드러나는 현상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종교를 이어받는 점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녀도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절에 다니면 자녀도 불교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도 결국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으니 예수를 믿게 되었지 혹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절에 다녔을 거다, 내가 인도에 태어났더라면 십중팔구 힌두교도가 되었을 거고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무신론자 아니면 귀신숭배자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자료를 골고루 살핀 결과라는 말이고 또 두루 적용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게 학문입니다. 종교사회학도 학문이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니라 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

아니라 할 필요도 사실 없지요. 학문적인 연구는 연구 그대로 보면 됩니다. 대신 학문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합리적이니까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려면 예외도 없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백 퍼센트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연구라 해도 그걸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겉만 본다면, 다시 말해 상황만 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이 연구한 걸 아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또 다른 관점, 곧 믿음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믿음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걸 깨닫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회학이 연구해 놓은 걸 은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그 연구의 진짜 내력이 뭔지 발견합니다. 학문이 가르쳐 주지 않는 참 뜻, 곧 그런 사회적 현상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뒤집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는 것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하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입니까? 걱정을 해 머리가 빠집니까, 머리가 빠져서 걱정을 합니까? 이걸 좀 헷갈리지요?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 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 어렵구나 하신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만 거꾸로 몸이 약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약해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났으니 예수를 믿게 된 것 맞습니다. 종교사회학에서 보면 믿는 집에 태어난 건 원인이고 예수를 믿는 건 결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은 그걸 뒤집어 예수를 믿는 게 원인이고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건 결과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칙

이거 억지지요?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른 순서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게 먼저고 예수 믿은 건 그 다음인데 어떻게 나중에 생긴 일이 원인이고 먼저 있었던 게 결과가 됩니까?

이걸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먼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왕이면 태어나자마자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되는 거지요. 종교사회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일찍부터 알게 하시려고 나를 믿는 집안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건 믿게 된 원인이 아니고 계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계기입니다. 원인이라면 믿는 집안 자녀는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기일 뿐이지요. 그런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 믿는 친구를 사귀다가 덩달아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죽니 사니 하는 관계가 되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자 준다고 교회에 열심히 가다가 믿은 사람도 있는데 과자 때문에 믿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과자는 계기일 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세상 학문처럼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데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참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학문도 나름의 인과법칙이 있고 믿음의 세계에도 나름의 인과법칙이 있습니다. 둘 다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는 뒤에 오는데 학문이 원인이라 하는 게 믿음이 볼 때는 결과고 학문이 결과라 하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모순이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가지 인과법칙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믿음의 관점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설명을 아무리 해 주어도 이해를 못 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기죽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알아듣겠으면 관두자 하고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세상 학문에도 그렇게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남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에도 결과가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결과가 먼저 오고 원인이 뒤에 옵니다. 믿음하고 비슷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름은 들어 보셨지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면서 하나님은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과법칙을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고 하면 최종원인 또는 목적원인이라는 겁니다. 철학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인이 먼저 있어 나중에 올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결과,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최종 결과가 가장 앞으로 와서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식물이나 동물 같은 유기체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 씨가 자라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인과법칙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조그만 씨가 어떻게 커다란 나무, 등치가 있고 가지가 나고 거기 잎이 자라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세포가 분열을 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모양을 이루는지, 어떤 세포는 뿌리가 되어 땅으로 파고 들어가 물을 흡수하고, 어떤 세포는 등치가 되어 굽어지고 또 어떤 세포는 가지가 되어 거기 잎을 달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겁니다만, 어떤 건 다음에 나무 한 그루로 자랄 수 있는 씨가 되는지,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최종 결과가 씨가 처음 싹을 틔울 때부터 원인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나무로 자라게 만든다 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몰라 그런 것 같습니까? 근세철학의 대부 칸트라는 철학자도 판단력비판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결과가 앞으로 와서 원인 노릇을 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칸트도 이백 오십 년 전 사람이니까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겠지요? 진화론 같은 게 그 뒤에 나왔는데 지금도 진화론 생물학자들은 이런 논리를 배제해 보려고 무던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디다. 왜 안 될까요? 사람 머리가 그런 식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 하니 그렇지요.

그런 궁색한 논리에 비하면 믿음의 관점은 훨씬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닫기만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모든 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 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판단해 믿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을 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랍니다. 내가 예수쟁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창세 전, 곧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이라 합니다. 태어난 건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주후 천 구백 몇 십 년입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게 먼저입니다. 창세 전이니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십니다. 내가 주님에게 찾아가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아니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출생의 타이밍을 놓치신 경우에는 맛있는 과자를 써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친구를 붙여 주셔서 교회에 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상형을 붙여 주시지요. 이상형을 만나 죽고 못 사는데 아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답니다. 어떡합니까, 내 이상형인데? 나도 따라 가야지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 나도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깨달음을 점점 얻어 나중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 깨닫게 됩니다.

김동하 유아세례

오늘 김상범, 최수온 두 분의 아들 동하, Timothy 군이 유아세례를 받는데 유아세례가 바로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 이제 너도 교회에 가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동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걸 태어나자마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에 보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어린 동하가 지금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나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우리를, 동하를 하나님 것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일찍부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련된 부모는 아이의 종교는 아이가 직접 결정하게 하자 합니다. 하나 마나 한 말이지요. 내 종교를 내가 정하지 누가 정합니까? 유아세례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도 들었다. 너도 자라면 이 은혜를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라도 나중에 신앙을 내던지면 세례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하가 자라서 오늘 유아세례를 주기로 결정한 부모의 눈, 곧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을 갖게 될 때는 나자마자 그 은혜의 도장을 찍어 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잘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든 것으로 봅니다. 너는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 마디 못 하는 지금도 김상범, 최수온 두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고 그 은혜가 동하를 이 언약의 가정에 보내신 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예식을 갖습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당신의 것으로 미리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는데 오늘 동화가 받는 유아세례도 그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 부모에게 난 것도 참 복이지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복입니다.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앞으로도 평생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오늘 유아세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지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해야지요. 감사, 찬송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든, 친구를 잘 만났든, 결혼을 잘 했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걸 나에게 알려 주신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걸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에 넣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김동하군도 그 언약 안에 넣어주심을 감사드리며 큰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